

Market Index / 23일

코스피지수 ▼	3004.74 -30.72	코스닥지수 ▼	946.31 -9.07	유가(WTI, 달러) ▲	61.56 +0.12	환율(원)	1USD 100¥	실매 1148.75 1056.42	팔매 1109.25 1020.10	1EUR 1381.60	1CNY 182.13	실매 1327.70	팔매 164.79
---------	-------------------	---------	-----------------	---------------	----------------	-------	--------------	--------------------------	--------------------------	-----------------	----------------	---------------	--------------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마다 제각각

2019년 법제화됐지만 신청요건·수용기준 달라
금융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져 관련 문의는 꾸준
금융위, 운영 개선 위한 태스크포스 꾸려 논의중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은 이들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 2019년 6월 법제화됐는데, 은행마다 신청 요건과 수용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품목한 확인이 요구된다.

23일 제주도내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승진·이직 등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은행 역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알려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지난해 국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주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99.3%(549건 중 545건 수용)로 지역은행 중 가장 높았다. 부산은행의 수용률은 25.8%에 그쳤다.

또 최근 국회 윤두현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은 43.2%였다

제주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1150건이다. 이 가운데 대면 접수는 대부분 수용되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는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금융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차이가 큰 것은 신청한 모든 사람을 건수로 집계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수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한정해 신청 건수로 잡는 등 집계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 은행별로 금리인하 수용 기준이 서로 다른 점

도 수용률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별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들어갔다. 요구권 신청 요건과 적용가능 상품, 수용기준을 투명하게 통일시키고 고객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대출상담 창구에 고객들이 볼 수 있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을 내걸고, 대출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영업점 창구에서는 금리인하 요구 자격을 갖췄는지를 상담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90%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는데, 비대면의 경우 일단 신청해보는 고객들이 많아 수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여행전문기관, 2019-2020년 관광 설문 팬데믹시대 여행 갈 사람은 간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줄었지만 증감 패턴 비슷”

코로나19 여파로 전체적으로 여행이 줄었으나 갈 사람은 여전히 여행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23일 여행소비자를 대상으로 숙박여행과 당일여행 경험에 대해 묻은 '주제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의 숙박여행 경험을 추이를 보면 등락 패턴은 10%포인트(p) 이상 줄었다. 숙박여행 경험률(지난 3개월 이내)은 각각 69%와 58%로 코로나 이후 11%p 낮아졌다.

주별 경험을 추이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경

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는 패닉상태에 빠지며 경험률이 급감했으나 같은 해 4월 4주(17주차) 거리두기 완화를 기점으로 최저점에서 서서히 벗어나 전년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험률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전년과 흐름이 유사하다는 것은 확진자수 증감이나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력이 둔화되고 단기간 회복을 의미한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차가 줄어들어 여행이 있어 코로나발 활동 제약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일여행의 경우 숙박여행보다 민감하지만 큰 추이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주일간 숙박이 포함되지 않은 당일여행 경험률은 지난해 평균 23%였다. 대략 4명 중 1명이 지난 7일 내에 1회 이상 당일치기 여행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도,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참여기업 내달 2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초기 창업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맞춤형 지원 >벤처기업 육성사업 등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은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권리와(IP)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성능평가, 시장반응 분석, 투자유치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맞춤형 지원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지도, 국내·외 인증 및 특허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국내외 마케팅, 상품기획,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강다혜기자



드라이브루 소라 판매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어촌계 회원들이 드라이브루로 소라를 판매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노란우산 신규가입 촉진 도,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가입(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2016년 3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했고 2018년 제주, 울산, 경남, 광주 등으로 확산됐다. 현재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시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 지원에 힘입어 노란우산 재가입자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59만여명에서 지난해 138만여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월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지원금액을 2만원으로 상향했고 지난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4-5월 농지 소재지서 접수 신청단계서 자격요건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동안 신청받겠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본

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 농업인들이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설치·운영한다. 또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을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본직불금은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본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메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레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레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레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 18-2003-20-08

010-2699-2355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 (국제)2층
한라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